



numbers
vol. 267

한국교회 사회봉사 실태 기독교인,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에 이용하는 것, 반대!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인의 인간관계
- ② 미국인의 성탄절 교회 참석

[넘버즈 칼럼]

‘K-드라마’를 통해 교회의 ‘드라마’를 상상하다.

2024. 12. 17.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기독교인,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에 이용하는 것, 반대!

한국교회는 말씀(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불어 빵을 나누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이다. 모든 시대에는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영역과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경제성장 이면에는 극심한 경제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국가의 공적 서비스가 확대될 지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번 호에서는 한국교회가 사회봉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 수준과 인식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교회가 사회봉사에 더 큰 비전을 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사회봉사' 실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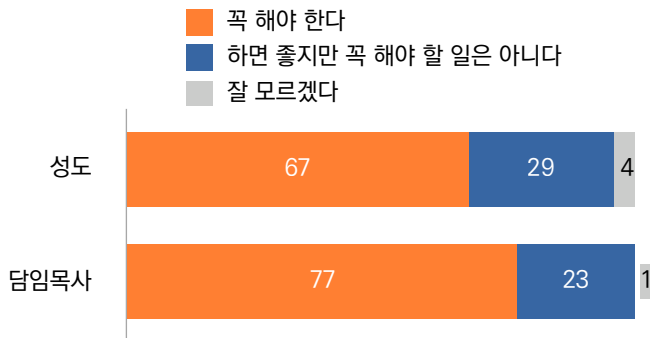
구분	기독교인	담임목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교회 출석자)	전국의 담임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 발송)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26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담임목사의 경우 교회규모별 가중치 적용)	
조사 기간	2023년 11월 21일 ~ 11월 28일	2024년 1월 5일 ~ 1월 15일
조사 의뢰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사회봉사의 필요성/중요성 인식] 기독교인 10명 중 3명 가량, 교회의 사회봉사 필요성 인식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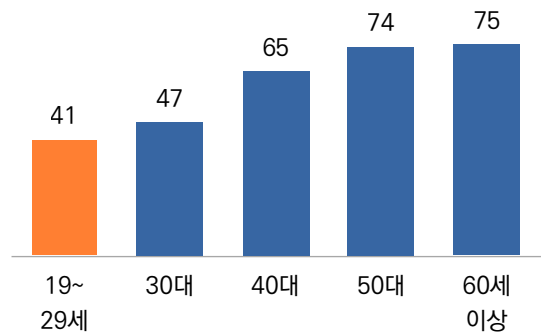
- 사회봉사는 교회의 당연한 의무일까? 교회가 사회봉사를 꼭 해야 하는지를 묻은 결과, 성도 67%, 목회자 77%가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의 사회봉사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반대로 '하면 좋지만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는 사회봉사 불필요성 인식은 29%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교회가 사회봉사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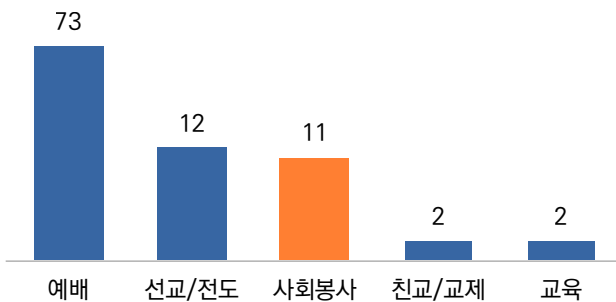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교회가 사회봉사를 꼭 해야 한다' 비율 (교회 출석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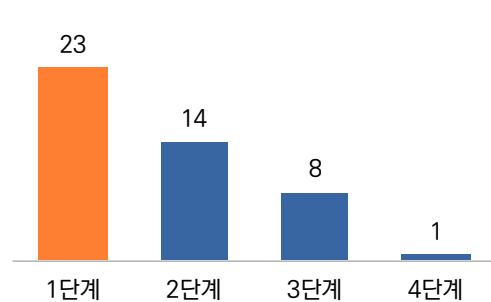
교회의 주요 영역 중 '사회봉사' 중요도 11%

- 성도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사역은 무엇일까? 예배(73%)가 압도적이었고, 이어 선교/전도(12%), 사회봉사(11%)가 비슷하게 두 번째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회봉사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꼽은 비율'은 신앙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높았고, 신앙 수준이 가장 깊은 4단계의 경우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사역 (교회 출석 기독교인, %)



[그림] 신앙단계별 '사회봉사'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선택한 비율 (교회 출석 기독교인,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예배실태 조사, 2024.01.(전국의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1.07.~11.15.)

Note) 신앙단계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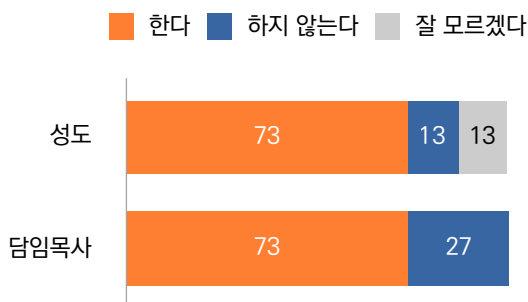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02

[사회봉사 실태 및 인식] 사회봉사 하지 않는 교회,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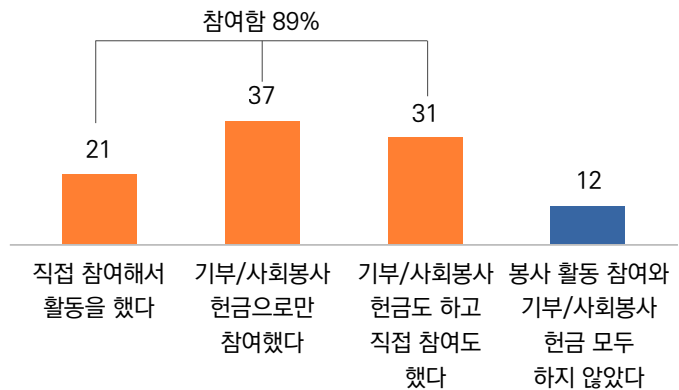
- 출석(시무)교회에서 사회봉사를 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성도와 목회자 10명 중 7명(73%)이 '한다'고 응답했고,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 교회는 27%였다.
- 출석교회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성도에게 어떤 방식(직접 참여, 기부 등)으로 참여했는지를 물었더니 '기부/사회봉사 현금으로만 참여'가 37%로 가장 많았고, '기부/사회봉사 현금+ 직접 참여'(31%)가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 성도(89%)는 직·간접적으로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의 사회봉사 실시 비율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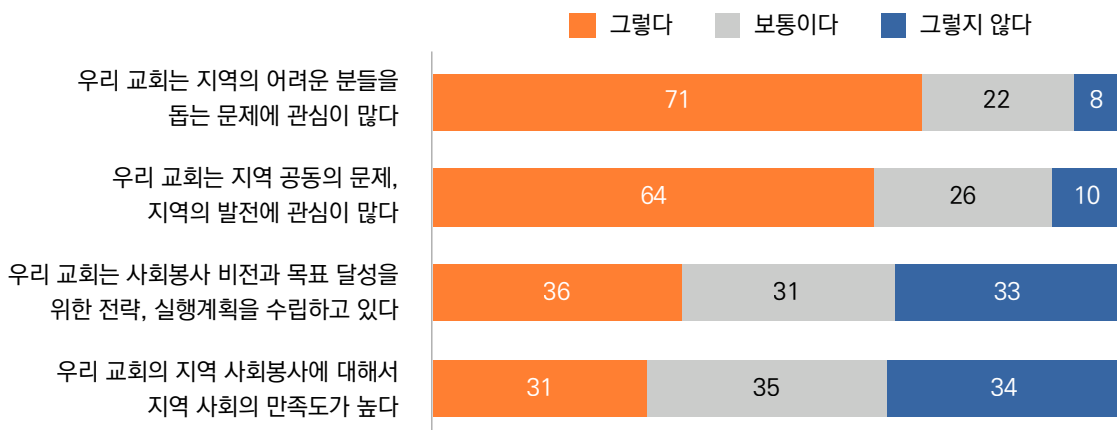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 경험 (출석교회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성도, %)



사회봉사 전략/실행계획 있는 교회 36%에 불과!

- 목회자들은 소속/시무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문제'(71%)와 '지역 공동의 문제, 지역 발전'(64%)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해 단순한 구제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까지 사회봉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사회봉사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실행계획 수립하고 있다'는 비율은 36%에 그쳐 앞선 관심도 대비 사회봉사 전략/실행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사회 만족도가 높다'의 경우 '그렇다' 31%, '그렇지 않다' 34%로 10명 중 3명의 목회자는 그들의 사회봉사에 대해 지역사회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 응답해 주목된다. 따라서 지역 내 적절한 봉사 수요 파악과 대처에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인식*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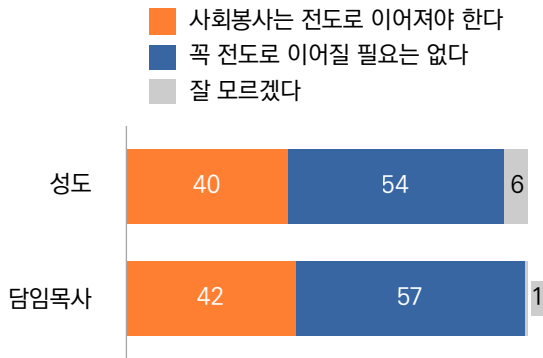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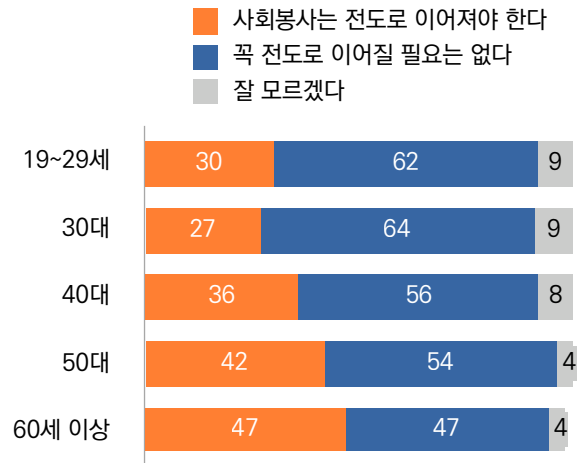
기독교인,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로 이용하는 것, 반대!

- ‘사회봉사 활동이 전도로 이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에는 성도와 목회자 각각 40%, 42%가 ‘전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과반 이상(성도 54%, 목회자 57%)은 ‘꼭 전도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보여,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봉사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사회봉사 활동은 전도로 이어져야 한다’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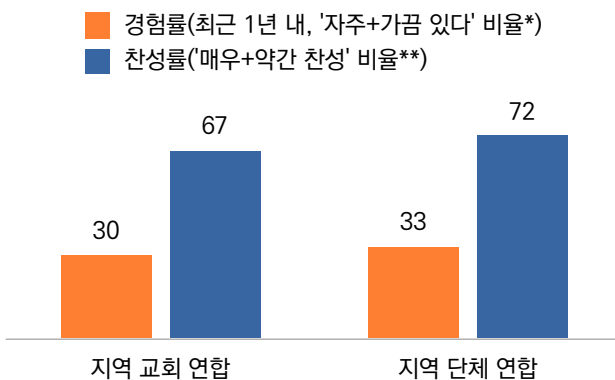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사회봉사 활동은 전도로 이어져야 한다’에 대한 의견 (교회 출석 성도, %)



지역 교회/단체 연합을 통한 사회봉사, 성도 3명 중 2명 이상 ‘찬성’!

- 개인, 각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회봉사뿐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속 다른 교회/단체와도 협력하여 사회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연합활동의 경험률과 찬성여부를 살펴본다.
- 자신의 교회가 지역 교회와 연합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성도의 30%가 ‘있다’고 응답했고, 지역 내 다른 교회와 연합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에 관한 찬성률도 67%로 경험률 대비 훨씬 높았다. 또, 지역 단체 연합 사회봉사 활동에도 72%가 찬성해 성도 3명 중 2명 이상은 지역 연합 사회봉사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출석교회의 지역 내 다른 교회/단체 연합 사회봉사 경험 및 찬성 의견 (교회 출석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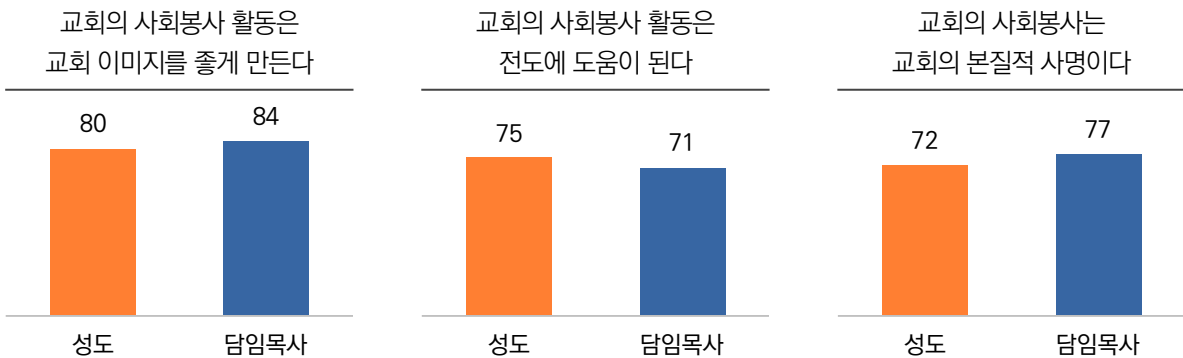
*4점 척도
**5점 척도

03

[사회봉사의 의미와 유익] 목회자/성도 10명 중 7명 이상, 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 교회 사역으로서 사회봉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교회 사회봉사 의미에 관한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도와 목회자의 동의율을 살펴본다.
-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은 교회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에 성도와 목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은 전도에 도움이 되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에 각각 70%대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사회봉사 활동은 대외적으로는 교회 이미지 제고와 전도에 도움이 되고, 본질적인 사명으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교회의 사회봉사 의미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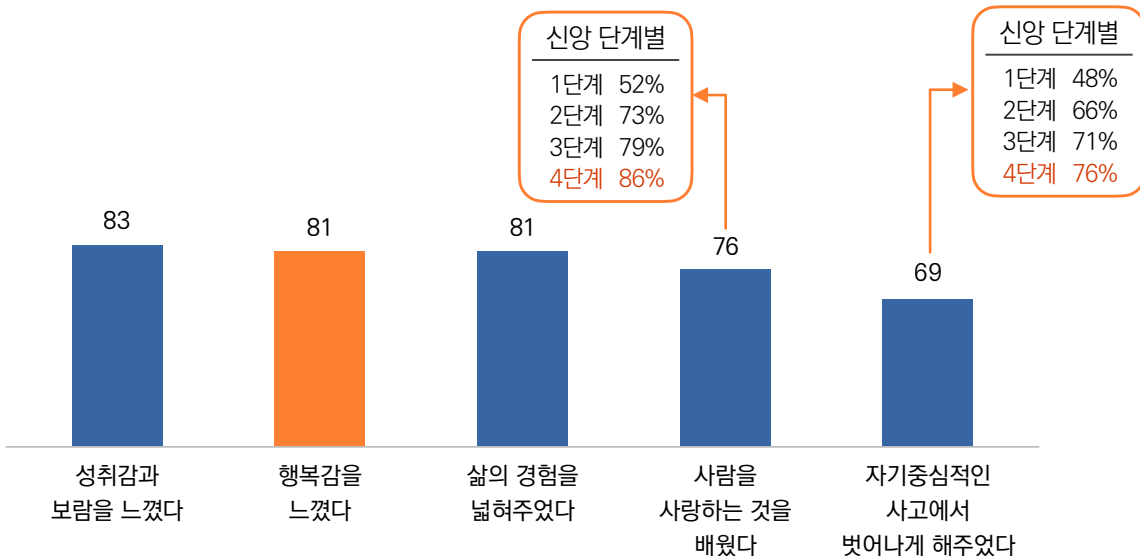


*5점 척도

사회봉사의 유익성, '행복감을 느꼈다' 81%!

- 봉사 경험자에게 사회봉사를 통해 어떤 유익을 경험했는지 항목별 긍정률을 통해 살펴본다.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다', '행복감을 느꼈다', '삶의 경험을 넓혀주었다'에 대한 동의율이 80%대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76%),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69%) 등 이타적 행동과 사고까지 나아가는 것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타성' 측면에 대한 동의율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개인적인 사회봉사의 유익 (1년 내 사회봉사 경험 성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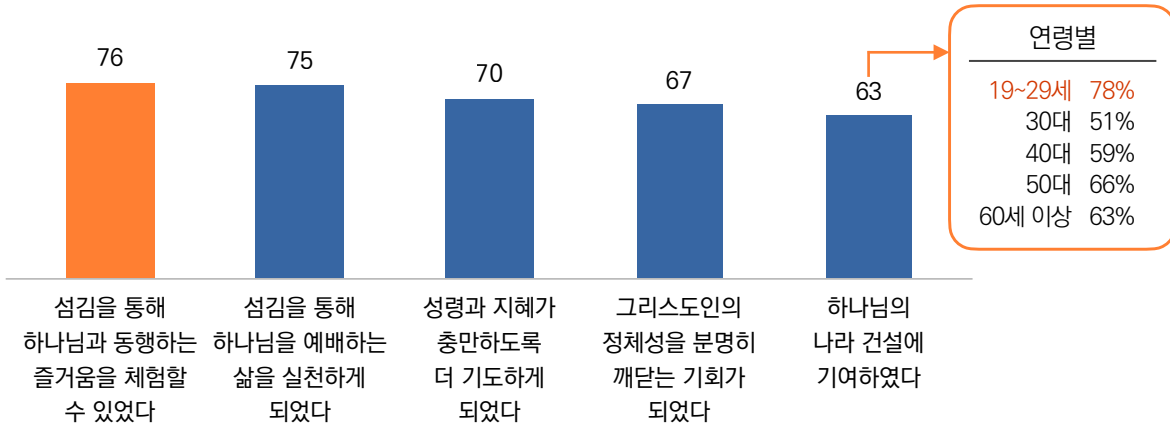


*5점 척도

사회봉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체험’ 76%!

- 기독교인으로서 사회봉사를 통해 얻는 유익(봉사 경험자 대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체험’ 76%,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실천’ 75%, ‘더 기도하게 됨’ 70% 등의 순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 한편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함’은 10명 중 6명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연령별로 봤을 때 특이점은 20대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 기여함’을 꼽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란 비전 제시를 통해 20대 크리스천의 사회봉사 독려가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기독교인으로서 사회봉사의 유익 (1년 내 사회봉사 경험 성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5점 척도

04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평가]

시급함에 비해 노력 못하는 사회봉사 영역, '정신건강'!

- 사회봉사 영역별로 성도와 목회자가 느끼는 시급함 정도와 교회의 노력을 각각 물어보았다.
- 성도와 목회자 모두 '노인돌봄'을 가장 시급한 봉사영역으로 꼽았고, '아동돌봄'과 '정신건강'이 3순위 안에 들었다. 시급함에 비해 교회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봉사 영역으로는 '정신건강'이 목회자 1위, 성도 2위로 응답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봉사 영역별 교회 사회봉사 활동의 시급성('매우+약간 시급함' 비율*)과 노력 정도('매우+약간 노력함' 비율*) 차이 (상위 5위)

	시급성			노력 정도	
	성도	담임목사		성도	담임목사
1	노인돌봄 71%	노인돌봄 82%	1	노인돌봄 47%	노인돌봄 42%
2	아동돌봄 65%	정신건강 76%	2	아동돌봄 4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7%
3	정신건강 62%	아동돌봄 69%	3	장애인 돌봄 41%	교육 35%
4	기초생활유지 61%	가족 및 사회적 관계 68%	4	정신건강 38%	아동돌봄 34%
5	장애인돌봄 61%	장애인돌봄 64%	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8%	정신건강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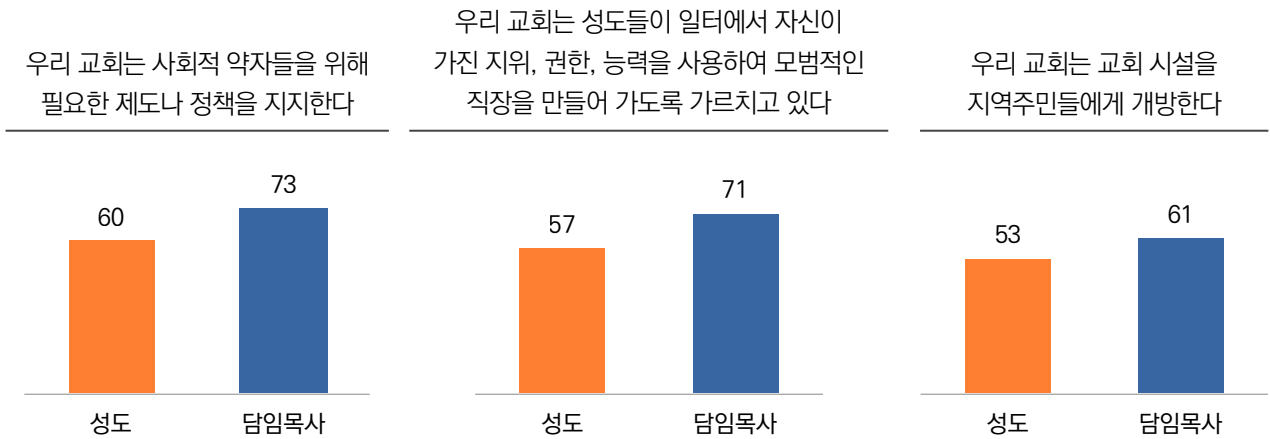
	(시급성-노력) 차이	
	성도	담임목사
1	기초생활유지 25%p	정신건강 44%p
2	정신건강 24%p	장애인돌봄 41%p
3	노인돌봄 24%p	노인돌봄 40%p
4	아동돌봄 21%p	아동돌봄 35%p
5	보호/안전 21%p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1%p

*5점 척도

출석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 목회자보다 성도 평가가 낮아!

- 출석교회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살펴본 결과, '우리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지지한다'에 성도 60%, 목회자 73%가 동의했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자신이 가진 지위, 권한, 능력을 사용하여 모범적인 직장을 만들어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에는 성도 57%, 목회자 71%의 긍정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목회자보다 성도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긍정 평가'가 낮고 두 그룹 간 격차도 컸다.
- 또 '우리 교회는 교회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앞선 두 항목 대비 더 낮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그림] 출석교회의 사회적 책임 평가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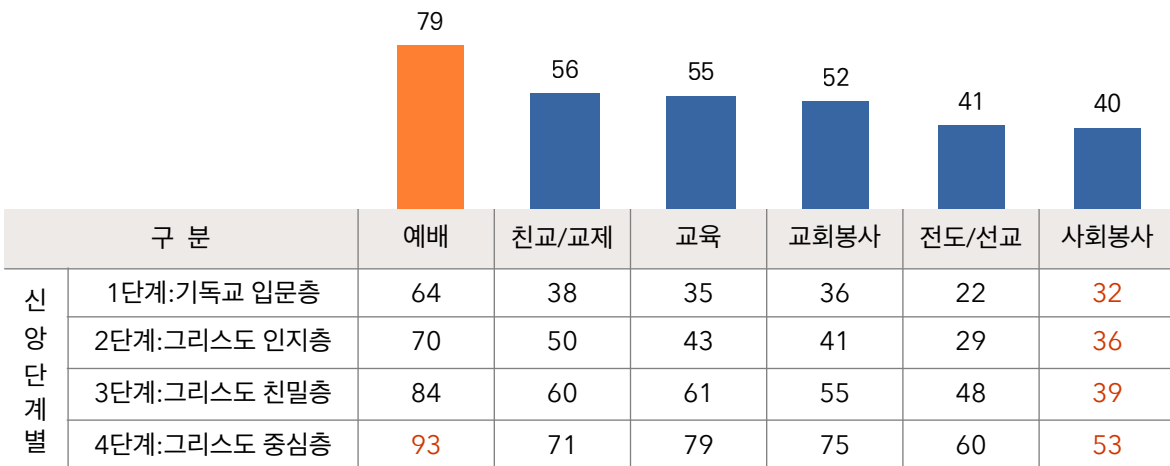


*5점 척도

교회의 주요 영역 중 '사회봉사' 만족도 가장 낮아!

- 사역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예배, 친교, 교육 등 6개 주요 영역 중 '사회봉사'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신앙 수준 4단계 성도에서도 예배(93%) 등 타 사역 대비 사회봉사 만족도(53%, 최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사역별 만족도 (교회 출석 기독교인,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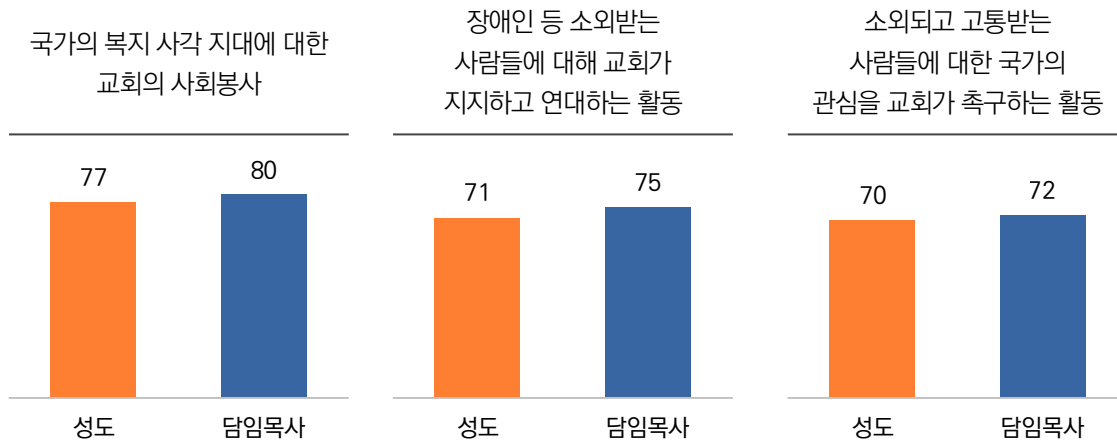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예배실태 조사, 2024.01.(전국의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1.07.~11.15.)

*5점 척도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범위, 복지 사각지대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국가 역할 촉구까지!

-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활동범위를 제시한 후 동의 여부를 물었다. 성도(77%)와 담임목사(80%) 모두 '국가의 복지 사각 지대에 대한 교회의 사회봉사'에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여 공적 지원이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
- 그 외에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에도 두 그룹(성도, 담임 목사)에서 7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그림]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범위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



*5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사회봉사 하지 않는 한국 교회 27%!

- 출석(시무)교회에서 사회봉사를 하는지를 묻은 결과, 목회자 10명 중 7명(73%)이 '한다'고 응답했고,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 교회는 27%로 나타났다.

2. 성도/목회자 절반 이상,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에 이용하는 것에는 반대!

- 사회봉사 활동이 전도로 이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에는 성도와 목회자 각각 40%, 4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과반 이상(성도 54%, 목회자 57%)은 '꼭 전도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보여 사실상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3. 시급함에 비해 노력 못 미치는 사회봉사 영역, '정신건강'!

- 사회봉사 영역 중 '노인돌봄'이 성도와 목회자가 꼽은 가장 시급한 영역이었고, 시급함에 비해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정신건강'(목회자 1위, 성도 2위)으로 조사됐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도서]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새물결플러스)
- ▶ [도서]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존 스토틀, IVP)

관련 성경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0:45)

목회 적용점

교회의 본질의 한 축인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생각해 보자. 우선 사회봉사는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란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교회가 사회봉사를 꼭 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목회자 77%, 성도 67%로 성도의 필요성 인식이 더 낮았는데 이런 결과는 성도 대상 사회봉사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설교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사회봉사에는 소극적인 채 복음전파에만 힘쓰는 이원론적 사고를 추구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전락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회봉사는 선택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 사역이라는 말이다.

다음으로 교회는 단순한 구제분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까지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기여할 수 있고,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약자들과 연대하고,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까지 봉사 범위를 넓게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인간관계
2. 미국인의 성탄절 교회 참석

넘버즈 칼럼

‘K-드라마’를 통해 교회의 ‘드라마’를 상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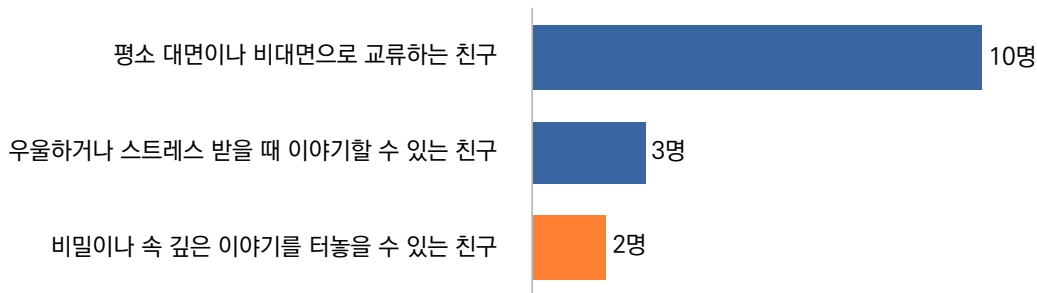


[한국인의 인간관계]

한국인, 속 깊은 이야기 터놓을 수 있는 친구, 2명!

-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친구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개인주의가 늘 어남에 따라 인간관계가 느슨해진다는 우려와 함께 비대면(메신저, SNS)으로 교류하는 친교 방식은 더 확장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인간관계 실태와 관계 맺는 성향을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한국리서치)를 통해 알아본다.
- 우리 국민이 평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친구의 수는 평균 10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는 3명, 비밀이나 속 깊은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는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유형별 친구 수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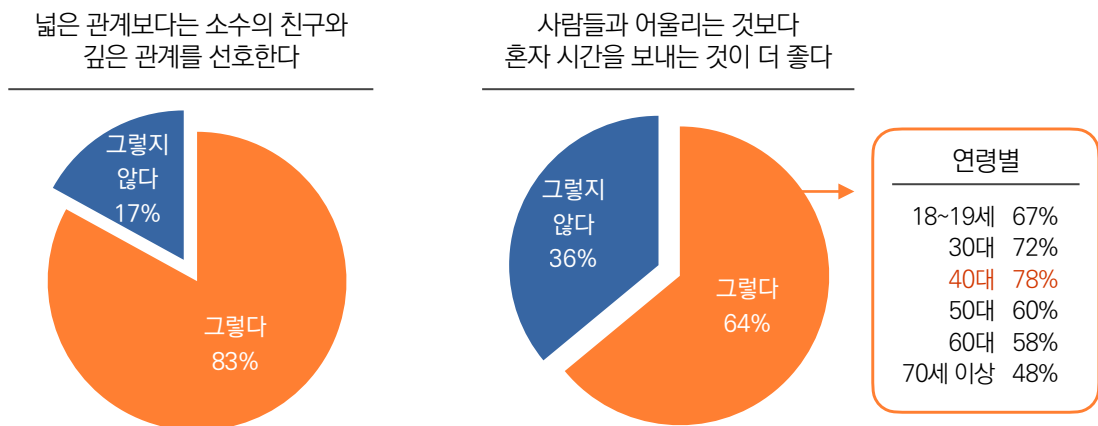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속의 여론, ‘인간관계의 형태와 스타일’, 2024.11.2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10.11.~10.14.)

넓은 관계보다 소수의 친구와 깊은 관계 선호 83%!

- 인간관계에서 양이 중요할까 질이 중요할까?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83%) 많은 사람과 ‘넓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소수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는 응답이 64%로 3명 중 2명꼴에 해당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는 응답은 40대가 78%로 가장 높았고 40대 이후로는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인간관계 스타일* (일반 국민)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속의 여론, ‘인간관계의 형태와 스타일’, 2024.11.2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10.11.~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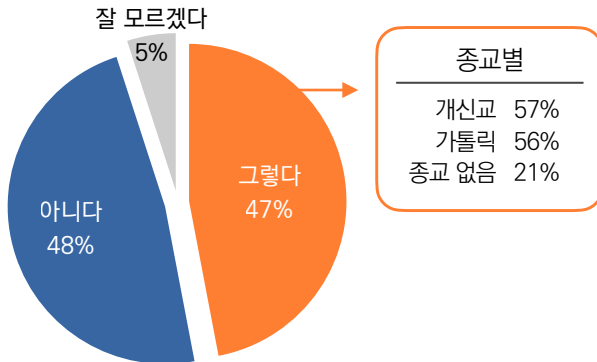
*4점 척도



[미국인의 성탄절 교회 참석] 미국 성인, 절반가량(47%)은 ‘성탄절에 교회 간다’!

- 미국의 목회조사 전문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미국인의 성탄절 교회 참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다. 미국 성인 대상으로 성탄절에 교회에 가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 47%, ‘아니다’ 48%로 미국 성인 절반가량은 성탄절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 57%, 가톨릭인 56%가 ‘그렇다’고 응답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였고, ‘무종교인’은 10명 중 2명(21%)이 성탄절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성탄절에 일반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지 여부 (미국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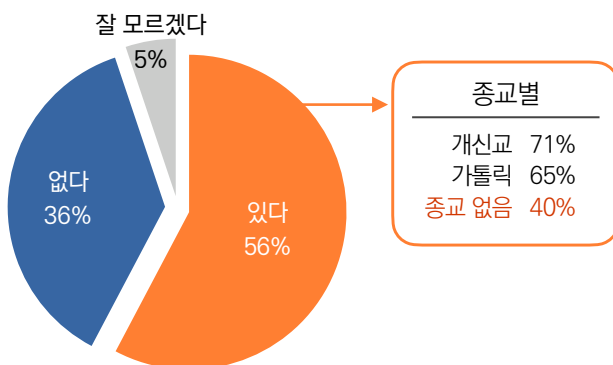


※출처 : Lifeway research, American Views on Attending Church at Christmastime (미국 성인 1,200명, 사전 모집 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2024.08.14.~ 08.30.)

미국 무종교인, 10명 중 4명은 ‘지인이 초대하면 성탄절에 교회 갈 의향 있다’!

- 성탄절에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미국인들의 경우 지인이 성탄절에 교회에 가자고 초대를 한다면 교회에 갈 의향은 얼마나 될까? 과반인 56%가 지인이 초대하면 교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무종교인의 경우 40%가 초대받으면 교회에 갈 것 같다고 응답해 주목된다.

[그림] 성탄절에 지인의 초대를 받아 교회에 참석 의향* (보통 성탄절에 교회에 가지 않는자)



※출처 : Lifeway research, American Views on Attending Church at Christmastime (미국 성인 1,200명, 사전 모집 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2024.08.14.~ 08.30.)

*4점 척도

‘K-드라마’를 통해 교회의 ‘드라마’를 상상하다.

이춘성 목사

분당우리교회 협동 목사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사무국장)

이제 곧 12월 26일,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를 앞두고 있다. 과연 이 작품이 전편을 뛰어넘는 흥행과 성공을 다시금 이뤄낼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류의 중심으로 우뚝 선 ‘K-드라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움츠러들었던 2021년 9월 17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었다. 이 작품은 공개와 동시에 넷플릭스 비영어권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단 일주일 만에 영어권을 포함한 넷플릭스 전체 순위에서도 4주간 정상에 오르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며, 한중일과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었던 한류의 바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지난 4년 동안, 한국 드라마는 잇따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놀라운 성과를 이어갔다. 2022년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수리남》, 《더 글로리 시즌 1》이, 2023년에는 《더 글로리 시즌 2》, 《마스크걸》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근 방영된 《눈물의 여왕》은 넷플릭스 전체 순위 3위에 오르며 또 한 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곧 12월 26일,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를 앞두고 있다. 과연 이 작품이 전편을 뛰어넘는 흥행과 성공을 다시금 이뤄낼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는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한류의 중심이 된 한국 드라마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흥행 요인을 분석한다. 이와 반대로 K-드라마가 지니고 있는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K-드라마의 흥행의 그늘 속에서 위선적인 집단으로 호도되고 있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대해 분석하고,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았다. 끝으로 이 시대에 기독교 교리의 진리와 능력을 드라마적 요소를 통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신학적으로 분석하였다.

K-드라마와 흥행 요인

한국 드라마는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까지 KBS, MBC, SBS 등의 지상파 채널과 tvN(2006년), OCN(2009년) 같은 케이블 채널, 그리고 2010년 이후 등장한 종합편성(중편)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넷플릭스의 진출을 시작으로 웨이브, 왓챠, 티빙,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다양한 OTT(Over The Top) 플랫폼이 등장하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환경을 통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OTT 플랫폼의 등장은 드라마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기존에는 지상파와 케이블, 중편을 합쳐도 10개 미만의 채널이 드라마를 공급했으나, OTT 플랫폼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영상 제작사들과 함께 주요 공급자로 떠오르며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또한, OTT 플랫폼은 주로 개인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시청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몰입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OTT에서 제공되는 드라마는 기존 TV 드라마보다 몰입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1]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218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06호 \(2024년 12월 2주\)](#)

-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 사태 인식, 국무총리·국회의장·여야 대표 신뢰 여부

[탄핵국면 정치인 신뢰도...우원식 56%·이재명 41%·한동훈 15%](#)

문화일보_2024.12.13.

사회 일반

[신혼부부 첫 100만쌍 아래로...맞벌이 댄 절반이 '무자녀'](#)

중앙일보_2024.12.11.

[저출생 대책... 남성은 '주거지원', 여성은 '직장문화' \[여론조사\]](#)

국민일보_2024.12.9.

[내년 전공의 3594명 모집에 314명만 지원...의사 인력난 가속](#)

중앙일보_2024.12.11.

["내란성 위염" 걸렸다" 신조어까지... 스트레스 호소하는 국민들](#)

국민일보_2024.12.12.

[한국 성인 언어·수리력 OECD 평균 미달](#)

국민일보_2024.12.11.

[2024 연말 분위기 및 연말 모임 관련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12.12.

아동 · 청소년 · 청년

[중고생 절반 "딤페이크 성범죄는 장난 때문"...13% "피해자 책임"](#)

연합뉴스_2024.12.11.

[20대 이하 고용률 7개월째 내리막](#)

조선일보_2024.12.12.

노인

['사기 조심' 60代, '건강 관리' 70代, '상속 준비' 80代](#)

조선일보_2024.12.11.

["빠빠지게 일해도 가난하다"...韓 노인 경제활동 OECD 2위, 소득은 처참](#)

매일경제_2024.12.11.

[30년 뒤 '노인가구' 비율 경북·전남 60%...세종도 36% 달해](#)

한겨레_2024.12.12.

경제 · 기업

[벤처기업 절반 "내년 자금사정 악화 전망"](#)

연합뉴스_2024.12.1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계엄 후폭풍에 더 위축된 대기업 ..."투자 늘릴 계획 없다" 59%](#)

매일경제_2024.12.10.

[직장인 31% "내 학력이 업무 수준보다 높아"](#)

조선일보_2024.12.10.

[대기업도 구조조정 칼바람... 50대 임직원들 내보냈다](#)

조선일보_2024.12.12.

[총수일가 4세, 평균 40대 중반에 회장...미등기율 늘어 '책임 회피' ↑](#)

한겨레_2024.12.10.

국제 · 환경

["가자지구 어린이 96% '죽음 압박' 느껴...절반은 '죽고 싶다'"](#)

연합뉴스_2024.12.12.

건강

[하루 30분 신체활동 → 인지기능 24시간 향상 효과](#)

동아일보_2024.12.12.

[경북 위암, 강원 대장암 환자 최다... 전남은 간암·폐암](#)

조선일보_2024.12.13.

기독교 · 종교

[한국 선교계, 올 한해 어떤 일 있었나... "다종심적 세계선교로 전환"](#)

데일리굿뉴스_2024.12.11.

[크리스마스 교회 참석에 대한 미국인의 견해](#)

라이프웨이리서치_2024.12.3.

[전광훈 "탄핵 저지" 외쳐도... 목사 3명 중 2명은 "탄핵 찬성"](#)

한국일보_2024.12.13.

기획기사 : [뉴 헬리콥터 부모], 중앙일보

["우리 애 힘드니 부서 바꿔줘요"...대기업 35%, 부모전화 받았다](#) _2024.12.2.

["우리 아들 학점 왜 F냐" 민원에...대학들, 교수 폰번호 감춘다](#) _2024.12.2.

[부모 59% "자식 성공이 내 성공"...'어른이 양육' 늘었다](#) _2024.12.2.

["영유 보내라" 월300만원 쓴 조부...과잉양육 손주까지 대물림](#) _2024.12.3.

["바보될까 불안" 성인자녀 행진 부모...자녀들 "감사한데 부담"](#) _2024.12.3.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지나친 개입 안돼" 전문가 10인 조언](#) _2024.12.3.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풍성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화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연구소, 시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FCJ 가정의힘, 한목회,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남촌레저개발(주),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치움,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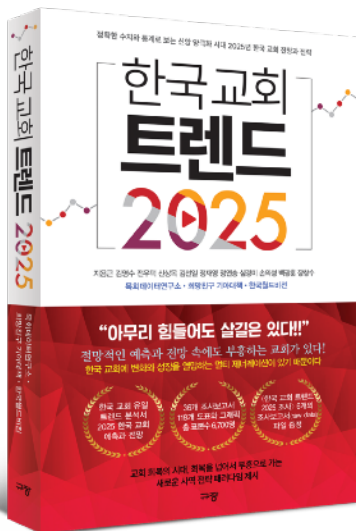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 교회 최초의 트렌드 분석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를 출간한 이후,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